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 진단과 전망

홍제환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alst99@kinu.or.kr

북한은 자력갱생을 늘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며, 식량도 자급자족하기 어렵다. 또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중 상당 부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중 일부도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국경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아예 빗장마저 걸어 잠근 것이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 주민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까.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현재 북한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북한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 하는 점인데, 자료적 제약이 큰 탓에 판단이 쉽지 않다. 활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향후를 전망해 본다.

1. 코로나19가 대외부문에 가한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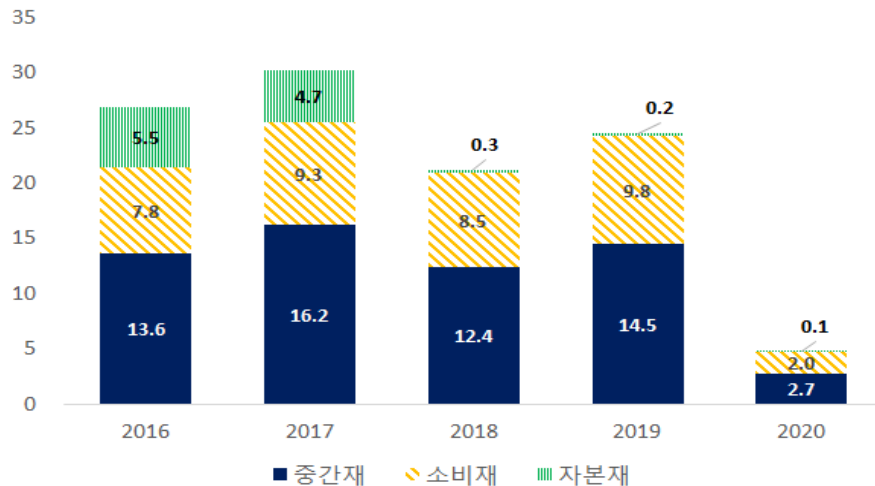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말에도 북한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수출 규모가 예년의 1/10 수준으로 급감한 데에다, 자체 조달이 어려운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도 거의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제재의 충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대체로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1 참조). 중간재와 소비재의 정상적인 수입은 급격한 경제 위축을 피하고 주민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규모가 유지됨에 따라 경제 악화는 어느 정도 피했지만,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나 외화보유고가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외화보유고가 바닥나면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도 크게 줄어들어 북한의 생산과 소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당시에는 북한의 외화보유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무역 적자 확대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림 1] 북한의 사용 용도별 대중수입 추이

(단위: 억달러)



주: 원유 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2016~19년은 최장호·최유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1, 2020, p.10에서, 2020년은 최장호·최유정,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 2021, p.9에서 인용함.

이러한 와중에 이루어진 국경봉쇄 조치는 북한경제 환경에 급변을 초래했다. 북한경제가 외화보유고가 고갈되는 단계에 준하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 부문이 받은 충격은 뚜렷했다. [그림 1]을 보면, 2020년 북한의 수입 규모는 급감했으며, 그 결과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 규모도 예년의 20~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 것도 국경봉쇄 이전인 1월 하순까지는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2월 이후 상황만 놓고 보면 수입 감소폭은 더 커진다. 국경봉쇄로 북한은 자본재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최소한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중간재와 소비재의 수입도 거의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021년 들어와서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수입은 1~2월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3월 이후 비료, 살충제 등이 들어오면서 그 규모가 3월 1,298만 달러, 4월 2,875만 달러로 증가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적은 수준이다.

II. 국경봉쇄 이후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무역 급감은 북한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탓에, 국경봉쇄 조치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몇 가지 정황적 근거와 통계에 입각해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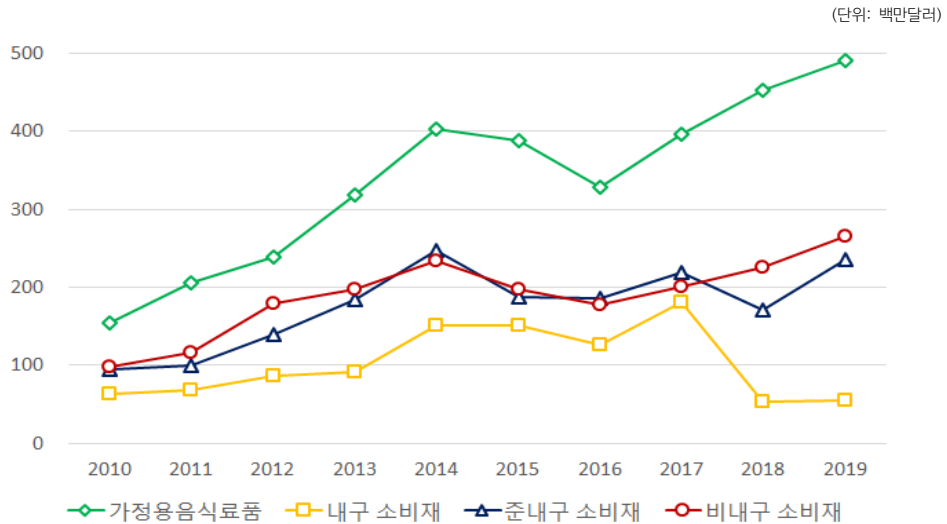
우선 생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있었던 만큼, 국경봉쇄로 인한 수출 중단이 생산에 미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자본재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도 길어지고 있지만, 자본재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그 여파가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용 자재, 자본재의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수입 중간재나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20년 12월 북한의 대표적 비료 생산기지 중 하나인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 비료공장의 경우,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압밸브, 고압분사기 등이 마모되어 교체해야 했지만 수입산 부품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을 1주일 이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¹⁾ 다만, 국경봉쇄 이후 북한의 산업 생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는 자료 제약으로 인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재 공급 감소에 따른 생활수준 악화도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1) 「북한 굴지의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 비료공장의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수입산 부품부족으로 생산을 멈춤」, 『KITA 북한무역 월간브리프』, 2021. 1, pp.7-8.

인해 소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에다,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의 소비재 생산도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2]는 북한의 주요 소비재 수입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대북제재로 인해 가전 등의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8년 이후 수입이 급감한 내구 소비재를 제외하면, 가정용 음식료품, 준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모두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010년대 말에는 그 수입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용 음식료품의 경우, 2010년 1.5억달러에서 2019년 4.9억달러로 수입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해 온 상황에서 2020년의 소비재 수입 규모는 2010년보다도 훨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인데, 이는 수입 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주민들의 소비생활 수준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북한의 주요 소비재 수입 추이



주: 1)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기준임.
 2) 가정용음식료품은 BEC 112, 122를 합산한 결과이며, 내구소비재는 BEC 61, 준내구소비재는 BEC 62, 비내구소비재는 BEC 63임.
 3) 소비재에 해당하나 상대적으로 수입 규모가 작은 승용차(BEC 5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BEC 522)는 그림에 제시하지 않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0. 3. 17).

한편, 소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하는 재화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현지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는 장마당 가격 동향을 보면, 쌀, 옥수수 등 곡물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밀가루, 설탕, 맛내기, 식용유 등 수입품 비중이 높은 재화의 가격은 급등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밀가루, 설탕의 경우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기념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당과류를 생산하고자

각 지방 당국이 대거 사들이는 상황까지 겹쳐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2021년 초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²⁾

국경봉쇄 조치는 북한 식량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북한은 비료 생산량이 부족하여 매년 수십 만톤의 비료를 수입이나 원조를 통해 조달해 왔다는 점에서, 국경봉쇄 조치는 비료 공급 감소에 따른 식량 생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여 수입, 지원 등을 통해 식량을 들여와야 하는데, 국경봉쇄 조치는 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국경봉쇄 조치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상당히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더욱이 2020년에는 8~9월 태풍 피해도 있었기에 2021년 북한 식량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표 1〉 북한의 연도별 식량 생산량 추정치

(단위: 천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AO	5,430	5,689	5,648	5,141	5,891	5,454	4,951	6,462	5,523
농촌진흥청	4,676	4,807	4,803	4,512	4,823	4,701	4,558	4,640	4,398

주: FAO 통계는 조곡 기준이며, 농촌진흥청 통계는 정곡 기준임.

자료: FAO 통계는 Mandal and Roy, "Agricultural Production Situation in DPR Korea: 2020," FAO, 2021. 3, p.8에서 농촌진흥청 통계는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에서 각각 인용함.

그렇다면 2020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까. 〈표 1〉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북한 식량 생산량 추정 결과를 제시해 놓은 것이다. FAO 통계는 북한 당국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농촌진흥청 통계는 농촌진흥청이 기상, 비료 수급 상황, 위성영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산한 결과다. FAO 통계에서 유난히 생산량이 많게 추정된 2019년을 제외하고 2012~18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20년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1.2% 많다.³⁾ 반면, 농촌진흥청 통계를 이용해 2012~19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20년 생산량은 예년 평균에 비해 6.2% 적다. 하지만 역시 농촌진흥청 통계를 이용해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해 보면, 2020년 인구 1인당 식량생산량은 당시보다는 많다.

정리하면, 2020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거나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경봉쇄로 인해 2021년 식량 수입 및 지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2021년에 북한이 심각한 식량 부족

2) 「어린이 간식선물 제공을 위한 밀가루 품귀현상 등으로 곡물 가격 상승」, 『KITA 북한무역 월간브리프』, 2021. 2, p.6.

3) 2019년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것이 현재 북한 식량 사정이 양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왔으며,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볼 때, 2021년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III. 평가 및 전망

지금까지 매우 제한된 자료를 활용해 북한경제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경제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으나, 심각한 위기라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 수입 감소로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민들의 소득 감소,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재 수입 감소로 상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부 재화의 가격 상승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경봉쇄에 따른 수입 감소가 경제 전반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20년 식량 생산이 다소 부진했고 식량 수입과 지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2021년에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국경봉쇄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생산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등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경제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앞서 국경봉쇄 조치는 제재가 지속되어 외화보유고가 고갈되는 단계에 준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외화보유고가 고갈된 상황과 달리, 국경봉쇄 조치는 방역상의 필요에 따라 북한 스스로 시행한 것인 만큼, 대외관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아직은 북한 당국이 경제보다는 방역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불안이 심해질 경우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물자 부족이 심화되고 물가 불안이 심해지는 등 경제 악화 징후가 뚜렷해질 경우, 북한 당국은 필수적인 재화를 중심으로 수입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형태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한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막는 데에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 국면에서는 북중 무역 규모의 변화 여부가 북한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까지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경제가 아직 버틸 만한 상태에 있음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들어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당국이 무역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종종 포착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경제 상황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앞으로 이에 대해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최장호 · 최유정,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1, 2020.
- 최장호 · 최유정,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 2021.
- Mandal and Roy, “Agricultural Production Situation in DPR Korea: 2020,” FAO, 2021. 3.
- 「북한 굴지의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 비료공장의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수입산 부품부족으로 생산을 멈춤」, 『KITA 북한무역 월간브리프』, 2021. 1, pp.7~8.
- 「어린이 간식선물 제공을 위한 밀가루 품귀현상 등으로 곡물 가격 상승」, 『KITA 북한무역 월간브리프』, 2021. 2, p.6.
- 『KITA 북한무역 월간브리프』
-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data>).
-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